

명언
적을 위하여 화를 너무
덜게 하지마라. 너 자신을
때우기 쉽다.
—헝스퍼어—

외대학보

단기 4291년 7월 20일 (제18호) (제3종우편물인가 4291. 3. 27) 허가번호 제99호

발행인 박술음
편집장 임일근
주간장 정현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
한국의국어대학
발행소의 대학보사
Tel. 0684. 3040 일부 30 환
자매지 THE ARGUS
인쇄처 동아출판사 공무부

The Oe Dae Hakbo Published by the Publishing Department of the Foreign Language College of Korea, Seoul, Korea [월간]

연휴를 거듭하는 학생 자치 활동

정부 운영위원장 선거 완료

위원장에 최봉철 군 부위원장에 남선우 군

4291년도 정부 운영 위원장 선거는 지난 3일 전교생이 투표에 참가 하므로써 한달여에 걸친 치열한 선거전은 그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24일 정위원장에 강승규(E3) 최봉철(E3) 김병원(E3) 김용근(G3) 4인과 부위원장에 남선우(E2) 김용문(F2) 2인이 각각 입후보를 끝마치고 6월 26일 107호 실에서 전 학생이 모인 가운데 입후보 전원이 소견 발표회(所見發表會)를 갖고 30일 오전 9시 정각부터 투표표를 게시하여 오후 5시에 완료한 후 7시경에 개표를 끝냈는데 그결과 위원장에 최봉철(E3)군이 최고 표를, 김병원(E3)군이 차점을 각각 얻고 부위원장에 김용문(F2)군이 최고표를 얻고 차위에는 남선우(E2)군이 되었으나 최고 득표자가 전교생의 과반수 표를 획득하지 못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투표율은 70%(872명). 그후 7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와 총다수가결계(從多數可決制)에 의하여 위원장에 영어과3년의 최봉철(崔奉徹)군 부위원장에 영어과 2년의 남선우(南宣祐)군이 각각 최고 표를 획득하였다 투표율 60%(739). 그런데 정부 운영위원장 후보자의 득표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위원장 퇴임인사> 임기를 마치며

변영복
작년 이때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후 주로 2가. 본교에서 위원장을 받들러 계획적으로 일을 하였으나 돌연 학교의 이주와 부족한 시설로 인하여 자치 활동이 민활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하여 그 임무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어 시 부록한제가 위원장 임무까지 맡게 되어 큰 애로가 많았던 것입니다 신임 위원장과 부 위원장께 부탁할 것은 구 위원들 보다 더욱 민활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유간 중이던 본 대학 서반아어과 학생들의 모임인 "Club Latino Americano"의 회지 "El Fenix"가 7월부터 다시 속간되게 되었다. 이번에 발행되는 것은 제2호로서 약 20면 가량 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월간으로 발행 하리라 한다

외국어 웅변대회 폐막

—28일 경기고교 에서—

영어부 일등에 용산고교 양승천

기보한바 있는 본 대학 학도 호국단 주최 제 5회 전국 고등학교 외국어 웅변대회는 지난 6월 28일 하오 2시



제2회 전국 고등 외국어 작문대회 개최

본 대학 학도호국단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전국 고등학교 외국어 웅변대회와 함께 중요한 본 대학 연합 행사인 「전국 고등학교 외국어 작문대회」는 금번에 두번째로 개최된다는 것인바 사용 외국어는 영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서반아어이며 개최일은 대개 10월 말일경이 되리라 한다. 그 외에 상세한 것은 후일 발표할 것이다

한편 27일에는 54명의 응모자 중 원고 합격자 30명 (영어부 26명 중어부 1명 독어부 3명)에 대한 예선이 본 대학 소강당에서 개최되어 13명(영어부 10명 중어부 1명 독어부 2명)이 입선하여 본선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석순에 따라 문화부장 용윤식(龍乙植)군의 사회로 국민의례가 있었다. 임영부(사회 윤관홍) 중어부(사회 송재국) 독어부(사회 이정화)의 순서로 만장의 박수 갈채를 받았던 서 사자후를 트하는 변인이 끝났 다음 주심을 맡아주신 미국 대사관 문정파장 Gregory Henderson 씨 그리고 은교부 차관 「정선기」씨의 장례이 있는 다음 본 대학 박학장님의 「이 웅변 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해주신 유지 여러분과 심사를 맡아주시는 분들 그리고 경기고교의 김원규교장 선생님에게 여러가지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친절하신 도움을 바라옵고 전국 고등학교생들의 보다 많은 응모가 있기를 부탁한다.」는 요지의 인사말에 이어 이번 대회 학생과 장 합일근(姜逸根) 조교수의 입상자 발표가 있었다. 곧 영예의 입상자 5명에 대한 박학장의 상장품 상봉수여와 3명에 대한 장려상 수여에 참가기념품을 수여한후에 흥분의 물결이 진정되지 않은채 막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방승극 현상모집에 김창린군 입선

지난 6월에 국방부 정훈국에서 실시한 「6.25 8주년 기념 방승극 현상모집」에 「조국의 젊은 발자국들」이란 작품을 출품한바 있던 영어과 4학년 김창린(金昌麟)군이 가장으로 당선되어 그 시상식이 지난 23일 거행되었다. 그런데 현상모집에는 당선작은 없으며 가장작 4편이었다고 한다 (사진은 김군)

「El Fenix」 속간 C.L.A.의 회지

창간 이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국어 공개 강좌

中國學會에서
본 대학 중국학회는 이번 학기 방학을 이용하여 전국 고등학교생을 위한 중국어 공개 강좌를 열리라 한다. 그런데 강사는 본 대학 중국어과 김지일(金志一)부교수 및 중국어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일은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25일간 장소는 광성고등학교교과로 하며 초급에서부터 대학 입학반까지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 청강자는 전국 고등학교생으로써 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고 인원은 각 학교별 2명 이내여야 한다. 또한 청강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본 대학 서무과에 신청하기를 마치고 있으며 청강료는 없다고 한다

USIS주최 하기 중고등 학교 교사 영어 감습회

매년 U. S. I. S. 가 개최하는 전국

승회 중·고등학교 교사 영어 감습회를 금년에는 7월 26일부터 2주일 동안 광주와 부산에서 열리라. 본 대학에서는 영어과 안호삼 교수와 김인선 부교수가 참가 하리라 한다. 그런데 그 강사들은 다음과 같다

<광주>
안호삼 조석식 김진재 송석중
<부산>
김인선 Dr. Fred Lukoff 전형국 이명성
노문화 연구회 소식
그 동안 경지 상태와 같았던 「노문화 연구회」에서는 지난 4일 총회를 개최하고 연구 발표회, 회지 발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이행할 것을 결의 하였다

Mr. Noah Rotwein

영어과에 새로 부임하다



그간 W. Smits 조교수의 사임으로 인하여 계속 휴강 중이던 영어과 1학년의 회화과 2학년의 영작문이 다시 활기를 띠어

게 되었다. 즉 이번에 새로 모신 선생은 Mr. Noah Rotwein이며 선생은 New York에 있는 St. John's University를 졸업후 1940년부터 1957년까지 약 17년간 교수 생활을 하여 오다가 이번에 본 대학의 전임으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하기 방학 시작 7월 20일부터

등록은 8월 25일—30일

학생과 발표에 의하면 이번 제 1학기 하기 방학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2일 동안이며 제 2학기 등록은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완료하여야만 한다 고 한다. 특히 유의할 것은 전과 같은 특전이 없으므로 등록 기일을 절대 잊으실 것이다

나의 첫 글

사람은 대개 놓여진 위치와 환경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생애에서 어느 때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무슨 일이나 정밀하고 회가 결정에 이른 세대와 맞서고 있는 우리의 생활은 현실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갈망의 격랑을 타고 있다. 외국어 대학 하면 외국문화 연구와 외국관계의 일만이 되리라 고 일반은 말하고있고 우리들 자신도 같은 생각인 것이다 시대는 우리를 요구하며 나라에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그저 무물만의 개구리 식인 공부나, 어리석고 쓸모없는 사람들과의 환담이나 조그마한 일에 대한 불평을 부르짖는 소극적인 생활이 커서는 안될 것이다 보다 더 적극적인 학문의 연구와 능동적인 교내 교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능동적으로 일하자

특히 수동적인 습성! 이것은 우리의 전 역사를 돌돌던 썩은 산물에서 불과한 것이다. 비록 고대 설비가 불비하다 해도 어느 정도 케데에는 울었다고 본다. 몇몇 제 참 자고 있던 각과 의 새물부터 깨어 날 때가 되었다. 대운 것은 발표하고 모르면 것을 깨우쳐 줘 넘겨 사귀며 외국문과 연구의 침란을 걸는 우리 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제언 원고모집

본 대학 내의 건설적 의견들은 학생 상호간의 협조를 요하는 문제의 의견을 교환코자 하는 내용으로 200자원고지 4매 정도로 하여 본 학보사에 부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점은 좋으나 과, 학년 교내 교외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第 13 回)

Ⅰ. 自然과 문화

自然은 [英] nature [獨] Natur [佛] nature [伊] natura [西] naturaleza ... [英] culture [獨] Kultur [佛] culture [伊] cultura [西] cultura [露] kultura

等으로 두루 쓰이는데 이것도 라틴語 cultura=《耕作》, 《養育》, 《敦養》(尊榮), 《祭祀》에서 起源한 말들이다 ... [英] nation, [獨] Nation, [佛] nation, [伊] nazione, [西] nación [露] natsija

Ⅱ. 古典主義와 浪漫主義

《古典主義》란 말은 [英] Classicism의 翻譯語이고 浪漫主義란 [英] romanticism의 roman을 《浪漫》이라고 漢字로 轉寫하고 -ism란을 《主義》라고 옮겨 놓은 말이다 ... [英] romanticism [獨] Romantismus od. Romantik [佛] romantisme [伊] romanticismo [西] romanticismo [露] romantizm

問題할 것이 없이 《로만主義》라고 쓰여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또 《慣用》이라는 事實도 無視할 수는 없으니筆者도 《浪漫》이라고 쓰오되다 먼저 classicism이란 語는 [佛] classicisme [伊] classicismo [西] clasicismo [獨] Klassizismus od. Klassik [露] klassitsizm

等과 같이 現代 西歐諸國語에서 두루 쓰이는데 이것은 [英] classic [佛] classique [獨] klassisch [伊] classico [西] clásico [露] classitseskij

란 形容詞의 語幹 classic에 -isms(=主義)란 接尾辭가 붙어서 形成된 語로 모두 라틴語 classicus, -a, -um이란 形容詞에서 起源하는 것이다 ... [英] romanticism [獨] Romantismus od. Romantik [佛] romantisme [伊] romanticismo [西] romanticismo [露] romantizm

等으로 傳來되어 두루 쓰이는데 본來 中世라틴語 romanticus는 《로만 例에서 하나의 法則을 發見할 수 있 cus로 끝나는 (c가지는 語幹이고 us란이 語尾이다) 라틴 形容詞이 現代 西歐諸國語에 傳來되어 있을 경우에는 英語에서는 -c 語幹까지 단을 保存하지나 기에 英語式的 形容詞 語尾 al(이것은 본來는 라틴語 第三變이 形容詞의 語幹인 一語이다)을 붙이고 獨語에서는 獨逸式 形容詞 語尾 sch을 붙이며 露語는 러시아語式 形容詞 語尾 -tseskij를 붙이고 佛語에서는 ic의 c가 que로 되고 伊西語에서는 [라] -icus가 泰格語尾 o를 취하여 ico로 된다는 事實이다

來 中世라틴語 romanticus는 《로만 例에서 하나의 法則을 發見할 수 있 cus로 끝나는 (c가지는 語幹이고 us란이 語尾이다) 라틴 形容詞이 現代 西歐諸國語에 傳來되어 있을 경우에는 英語에서는 -c 語幹까지 단을 保存하지나 기에 英語式的 形容詞 語尾 al(이것은 본來는 라틴語 第三變이 形容詞의 語幹인 一語이다)을 붙이고 獨語에서는 獨逸式 形容詞 語尾 sch을 붙이며 露語는 러시아語式 形容詞 語尾 -tseskij를 붙이고 佛語에서는 ic의 c가 que로 되고 伊西語에서는 [라] -icus가 泰格語尾 o를 취하여 ico로 된다는 事實이다

人間 톨스토이 (上) 韓相列

= 人間과 作品生活의 深淵을 흐르는 同一한 스타일 = 傑作 戰爭과 平和(Война и мир)와 안나·카레니나(Анна Каренина)를 통해서

[一] 人間의 意識이 그들의 存在를 規定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反對로 人間의 社會의 存在가 그들의 意識을 規定하면 單純하고 未開한 原始 共產社會에서 分明히 歷史의 흔적을 文化를 역어 갔으니 文化의 原泉은 太古로 環元한다

古로 環元한다 自古로 人類가 生存하는 곳엔 文化의 聲이 흐르고 文化의 聲이 흐르는 곳엔 또한 藝術의 꽃이 燦爛하게 피어났다 ... [라] -icus가 泰格語尾 o를 취하여 ico로 된다는 事實이다

그들의 聲이 흐르고 文化의 聲이 흐르는 곳엔 또한 藝術의 꽃이 燦爛하게 피어났다 ... [라] -icus가 泰格語尾 o를 취하여 ico로 된다는 事實이다

그들의 聲이 흐르고 文化의 聲이 흐르는 곳엔 또한 藝術의 꽃이 燦爛하게 피어났다 ... [라] -icus가 泰格語尾 o를 취하여 ico로 된다는 事實이다

感傷의인 光彩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던 그가 經驗을 통해서 본 戰爭이란 人間이 單純한 盲目的 勇氣를 發揮하는 可恐한 境地의 無益한 存在라고 斷定하였다 當時의 그는 偏狹가 가까워 平和主義者도 宣傳家도 아니었다 그의 文名이 上昇하여 確實化된後에도 亦는 그는 文學보다도 <人間>이란 것이 더 興味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力量의 原泉이 있던 것이다

戰爭에서 돌아온 青年 <톨스토이>는 하나의 社交人이 되어 外國에도 旅行하였다 後 歸國하여 結婚을 하여 山村의 領地에서 道日하고 農村兒童들을 教育하고 農民의 狀態를 改善하려고 努力하였다 作品을 통한 文名은 世界에 떨쳤으나 도리어 人生問題 宗教問題에 關한 切實하고 痛烈한 煩悶과 疑惑은 그를 휘감아 作品生活는 드디어 소홀해 졌다 그래서 그는 自身의 生活을 完全하고 嚴格한 社會의 正義에 一致시키는 財產을 沒하였다

末年에 그는 모든 財產을 버리고 그를 둘러싼 貴族生活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修道院에 隱遁하였다 獨하고 放浪하던 중 이듬해는 어느 시골 寓舍에서 82歲의 高齡으로 客死하였다 <톨스토이>는 <두루-게네루>의 佛國人다운에 比하여 徹頭徹尾(리세어)인이었다 그는 한번 着目한 것은 빛이던 深覺하고 銳敏하게 行하지 않고서 는 못 배웠다

그에서 <러시아>人의 特徵인 自然의 努力을 傾注하여 目的을 追求했던 것이다 그는 如何한 錯雜한 問題를 取捨하더라도 그것을 驚異의 魅力과 感銘을 가지고 明瞭하고 素朴하게 分析하는 特異한 表現力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氣質下에서 그의 文學의 才能의 發展에 對한 것은 平靜하고 安樂한 家庭生活에서 完成된 敎育의 一大 敘事詩(戰爭과 平和)와 <안나 카레니나>인 것이다

그의 深淵에 潛한 藝術의 精神은 機會를 捕捉하여 復舊를 한 것이라 고 믿고 싶다 魂의 大勞苦에 依해서 到達된 <톨스토이>의 宗教의 信仰은 極히 單純한 것이었다 宗教의 敎育과 神學의 究明으로부터 解放된 基督의 敎育보다 그것인 것이 더 希臘正敎 敎會는 그의 努力을 두려워하여 그를 破門하고 그의 作品을 檢閲하는 것에 依하여 그의 努力을 增加시켰다

그의 宗教思想은 스스로 無抵抗과 平和의 無政府主義에 그를 引導하였다 그가 萬苦 貧窮하고 無名한 人間이 되었다면 痛恨없이 投獄된지 혹은 <시베리아>에 處刑된지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存在한 王보다도 強力한 文學의 巨인이었다 만약 政府가 그에게 손을 댔더라면 全 歐洲를 通해서 抗議의 嵐風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政府는 그의 追從者에 迫害의 손을 댈려 <톨스토이>를 無限한 悲哀에 빠뜨린 것이다 아마도 그가 1914년 이전에 死亡한것도 多幸한 일일 런지 모른다 (계속) (R4)

感傷의인 光彩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던 그가 經驗을 통해서 본 戰爭이란 人間이 單純한 盲目的 勇氣를 發揮하는 可恐한 境地의 無益한 存在라고 斷定하였다 當時의 그는 偏狹가 가까워 平和主義者도 宣傳家도 아니었다 그의 文名이 上昇하여 確實化된後에도 亦는 그는 文學보다도 <人間>이란 것이 더 興味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力量의 原泉이 있던 것이다

戰爭에서 돌아온 青年 <톨스토이>는 하나의 社交人이 되어 外國에도 旅行하였다 後 歸國하여 結婚을 하여 山村의 領地에서 道日하고 農村兒童들을 教育하고 農民의 狀態를 改善하려고 努力하였다 作品을 통한 文名은 世界에 떨쳤으나 도리어 人生問題 宗教問題에 關한 切實하고 痛烈한 煩悶과 疑惑은 그를 휘감아 作品生活는 드디어 소홀해 졌다 그래서 그는 自身의 生活을 完全하고 嚴格한 社會의 正義에 一致시키는 財產을 沒하였다

末年에 그는 모든 財產을 버리고 그를 둘러싼 貴族生活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修道院에 隱遁하였다 獨하고 放浪하던 중 이듬해는 어느 시골 寓舍에서 82歲의 高齡으로 客死하였다 <톨스토이>는 <두루-게네루>의 佛國人다운에 比하여 徹頭徹尾(리세어)인이었다 그는 한번 着目한 것은 빛이던 深覺하고 銳敏하게 行하지 않고서 는 못 배웠다

그에서 <러시아>人의 特徵인 自然의 努力을 傾注하여 目的을 追求했던 것이다 그는 如何한 錯雜한 問題를 取捨하더라도 그것을 驚異의 魅力과 感銘을 가지고 明瞭하고 素朴하게 分析하는 特異한 表現力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氣質下에서 그의 文學의 才能의 發展에 對한 것은 平靜하고 安樂한 家庭生活에서 完成된 敎育의 一大 敘事詩(戰爭과 平和)와 <안나 카레니나>인 것이다

그의 深淵에 潛한 藝術의 精神은 機會를 捕捉하여 復舊를 한 것이라 고 믿고 싶다 魂의 大勞苦에 依해서 到達된 <톨스토이>의 宗教의 信仰은 極히 單純한 것이었다 宗教의 敎育과 神學의 究明으로부터 解放된 基督의 敎育보다 그것인 것이 더 希臘正敎 敎會는 그의 努力을 두려워하여 그를 破門하고 그의 作品을 檢閲하는 것에 依하여 그의 努力을 增加시켰다

그의 宗教思想은 스스로 無抵抗과 平和의 無政府主義에 그를 引導하였다 그가 萬苦 貧窮하고 無名한 人間이 되었다면 痛恨없이 投獄된지 혹은 <시베리아>에 處刑된지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存在한 王보다도 強力한 文學의 巨인이었다 만약 政府가 그에게 손을 댔더라면 全 歐洲를 通해서 抗議의 嵐風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政府는 그의 追從者에 迫害의 손을 댈려 <톨스토이>를 無限한 悲哀에 빠뜨린 것이다 아마도 그가 1914년 이전에 死亡한것도 多幸한 일일 런지 모른다 (계속) (R4)

外大學報 別冊 第2號 原稿募集 恒常 摩接하여 주시는 諸學界의 協助로 본『외대학보』는 나날이 發展하여 가고 있음에 感謝드리는 同時 別冊 外大學報 原稿를 募集하여 이 倍前的 協助로 많은 投稿이 있기를 바라 옵니다 ... <외대학보 編輯室>

八月號發賣中 新文藝 46版 106面 定價 一冊 貳百圓 一年分 貳千四百圓 正陽社發行

二十世紀 佛文學과

휴머니즘 (完)

李 恒

모든 價値를 벗어난 赤裸裸한 삶을 안고 불안에 떠는 자—드와 같이 바레리도 또한 이 無價의 純粹知性的의 하업없는 空轉을 바라볼 따름 이었다 바레리의 드논은 心魂—한결같이 추구하는 純粹와 高貴는 우리에게 비할바 없는 敎訓을 남겨주기는 하나 도시 存在의 可能한 모든 決定에서 빠져나간 純粹한 知性은 어느곳에 스스로의 목적과 機能을 위탁할 것인가 우리는 反問 아니 할수 없다 바레리의 知的 努力은 어떤 眞理를 파악하려 경건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히 스스로의 無價의 機能으로 돌아오는 知性이 끝내 자유 가운데 充溢을 즐기기에는 없었다 이 무한한 空轉에 찾아오는것— 그것은 자기 分解이며 결국 知性的의 自殺—이기에 다른것이나 願想가운데 느끼는 이 죽음에의 誘惑, 거만하고도 고귀한 孤獨— 그의 作品 어느곳에서나 우리는 이 싸늘한 知性 虛無의 悲劇을 느낀다

出發이다 한때 原始性和 무의식을 지향한 모험에는 陶醉와 歡喜와 熱狂이 있었다 이제 그러한 浪漫이 물러간 광부지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구원할 길 없는 생과 宇宙의 카오스를 대한다 <無限에까지—> 여기 이들 버림받은 무리들의 悲劇의 體驗이 있다 <人生에 해결이란 있을수 없다 다만 前進하는 힘이 있을 따름> 이렇게 말하였을때 말로로는 삶의 究極의 絕望과 對決한 사람이다

그에 있어 죽임은 삶에 대한 致命的의 拷問으로 표현될 수 없는 타격이되며 그 더욱더 삶은 하나의 神祕로운 運命으로 變化하고 인간이 運命을 벗어날수 없는 위협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밀치어 오며 절망을 강요한다 그가 양양하는 行動이란 이 絶望에 항거하는 인간의 애절한 승산 없는 제스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前進—> 그러나 勝利와 하기에겐 너무나도 애절한 英雄主義가 말로로의 全作品을 통하여 우리는 돌려 삼기는 運命과 둘러 삼기후는 삶의 悲劇의 신비로운 리듬을 느끼며 설레임은 禁치 못한다

이렇듯 활짝 열린 20世紀의 무한과 도를 매를 같이하여 줄다듬질 친 무수한 찬미어— 알베레스는 “自然性的의 찬미어” 이라 했다— 들을 우리는 記憶한다 外的인 속박과 형식 原理와 道德을 물리친 “비몽”의 靈寢이라고 한자 理性의 베일에 가리웠던 생의 源泉에의 憶懷에 사로잡혀 그들은 스스로의 運命과 獨創이 결정하는 個性의 인 冒險에 몸을 던지자 原始性的의 光芒을 향한 그들의 출발은 한때 眩惑되리 만큼 화려 하였고 열광적이었으나 渴望과 환희속에서 고는 자—드, 이른바 “無意識의 幻想”에 설레이는 로렌스, 欲望의 섬에 흠모하는 몽테르랑—

그러나 그곳에 또한 그들의 悲劇은 울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合理과 既成의 價値를 거부한 후 그들이 마주친 것은 依賴한 곳도 따라야 할 것 없는 冒險이었기 때문이다 理性的의 王道를 버리고 朦朧속에서 그들이 對決한 宇宙와 存在의 意識— 이 永遠한 宇宙에서 現代의 구비치는 悲劇과 思想的인 비뚤어 있는 것이 자—드의 不安과 바레리의 懷凝— 그의 詩예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가지 注目하여야 할 사실은 이러한 劇의 不安과 苦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심오한 휴머니즘의 底流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는 정말 것이다 그러나 울부짖던 자—드의 反抗은 그의 晩年에 이르러 하나의 정숙하고 원만한 휴머니즘에 귀착하는 것을 본다면 그의 마지막 作品 『태제』에서 상앙의 英雄의 인간性에의 價値— 거처된 지난날의 숲결이 아직도 살아 있기에는 人間矛盾을 덜고 페히에서 일어서는 人間에 그후한 價値를 보내는 그를 우리는 휴머니스트로 보아 틀림 없으리라 믿는다 바레리에 있어 서도 그러한 知的 니히리즘의 極限이었던 그도 또한 絶望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끝내 歷史에서 구원되는 知性에 대한 價値를 버리지 않는다 詩에 대한 그의 崇高한 觀念, 文明批評에 나타난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暗示주는 바 큰 것이 있다 결국 그들의 世界에서는 「人間」은 온전히 말드러 온 것이었다

이와 같은 位置에서 까지는 不條理를 의식한다 <不條理라는것 그것은 非合理的인 것과 人間の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明晰에의 미칠듯한 갈망과 對價>이라고 말한 그는 이 宇宙와 생이 그의 타로로는 渴望과 물음에 대하여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있다 超越性的인 모든 이마—유물 거부한 그는 사방에서 不條理의 壁이 타자되며 승산없는 對決을 강요하는 것을 느낄 따름이다 잃어버린 組織의 喪기 約束의 나라의 希望도 없는 그의 世界는 하나의 <우이꼬>이다 그 안에서 그는 死刑囚의 體驗을 되풀이한다 <물론 幻覺도 빛도 살이진 宇宙 안에서 人間은 스스로를 異邦人으로 느낀다> 그는 여기에까지 왔었다 이렇듯 意識된 宇宙와 人間條理의 不條理와 맞서 志向해야 할 유일한 길을 그는 反抗에 발견한다 모든 幻想과 근거없는 形而上學的의 飛躍과 宗教의 해결을 물리친 그는 스스로의 삶을 안고 이 不條理의 壁에 부딪칠 것을 강요한다 까꾸도 또한 人間 스스로의 힘과 威嚴을 표시하는 여타는 努力으로서의 行動을 찬양한다 여기 <시지프스의 神話>의 意識가 있다 神을 拒否하며 다시 굴러 떨어지곤 하는 바위를 끌며 우리는 스스로의 行動—希望을 잃어나 絶望은 아닌가운데 人間으로서의 자량을 쓰느니까지 그는 <幸福한 시지프>라고까지 말한다

이 아니라 하나의 明證, 이윽도 목적도 없는 영원히 無價인 明證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안에 비치우자 일직이 觀念이 부여 하였던 모든 外觀의 질과 장식은 녹아 떨어진다 아드리오리의 絶望, 理想과 價値의 絶望— <本質에 앞서는 實存>은 이에서 더—온다는 觀念과 價値를 살피려고 동실 거리며 더—온다는 이 實存을 대는 샤르트르의 感性은 『驅吐』로 표현 된다 그것은 물론 存在와 事物들의 무 可化할수 없는 장벽을 느끼고 동시에 그들의 허구함과 不條理에 압도 당하는 순간 그의 의식을 침범하는 變態의 움직임에 가려져 한 것이자 어느날 半—인공적으로 <驅吐>의 主人公로 강요받은 어떤 存在의 비밀을 이해할 때 이르는 明證의 일 순간을 포착 하였다

<우리는 우리자신으로 얽매인 거북스러운 存在들이자 우리는너나나나할 것 없이 여기 존재하여야 할 최소한의 이유도 없다 서적서적한 막연히 不安한 모든 存在는 他者와의 關係에 있어 자신이 전연 無用の 것임을 느낀다 『드르』나 詩篇—無氣力하고 수척하고 음탕하고 음산한 생각에요 동하고 있는—이나 또한 드르이다>

理由目的도 없는 世界 안에서, 한낱 無用的인 것으로 귀착한 허탈된 생과 存在들의 꿈틀거리 허무가 들어 설 여지 없이 발과 같이 充溢한 그 무엇— 이것이 實存이다 그러기에 實存이란 價値의 無價라고 할가 無價의 國土안에 처근치던 너를놓는 뜻임은 存在世界的인 아우성 이라 할 것이다 <그처럼 열광하는 허무에서 날 이거더 우리는 그것 『나』이다> 이 허무(價値의)와 實存과의 對價—이 비극적 對價에서 우리는 實存主義를 비판 아니라 모든 現代의 懷凝의 絶望에 넘친 形式를 발견 한다 모든 次元의 구원을 부정하는 샤르트르에게는 다만 이 사실의 승인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기에 實存은 이질적인 다른이 되 受容이 기도 한다>

극히 산만 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提示하는 人間의 이마—유는 우리에게 絶望을 향하여 억제 할수 없는 欲望에 설레이는 現代 冒險의 극극의 相을 밝혀준다 그들은 20世紀 初葉의 개척하여 놓은 原始性的인 冒險의 막다른 골목에서 있다 그들에게 적용될 것은 가장 적합한 표현은 역시 自限이라는 말일 것이다 그들은 출발 부터 자신의 虛無, 하나의 絶望과의 대결이었다 實存의 인 苦惱—不條理의 壁—죽임앞의 不安—이 모든것 가운데 指標은 暗無속에 헤매이는 人間 스스로 마져 解體하는 人間의 비극을 느낀다

허나 이렇듯 밝혀져 있는 이들의 冒險은 한낱 否定에의 否定으로 끝난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 휴머니즘의 문제가 있다 그들이 단순히 지난날의 價値와 人間像을 拒否하였다고 해서 휴머니즘의 敵이라고 萬一 단단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人間은 스스로의 可能性과 天性的의 運命가운데 물어 놓는다는 것 그 이하에 이 소를 끼치는 自由의 영역에서 어떠한 原理와 敎說에도 의뢰함이 없이 자기의 運命과 未來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휴머니즘과 전연 성격과는 또하나의 휴머니즘을 理解해야 한다 스스로의 悲劇性과 非타르트를 지니고 승산 없음을 알면서도 삶과 運命에 대결할것을 권유하는 휴머니즘의 심각성에 우리는 깊은 感動을 禁치 못한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세대로 휴머니즘은 어떤 解決을 提示하느냐 하는 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肯定的인, 積極의 意思도 帶해여 여기에 關해서는 비판적인 관측이 유해하다 하거나 그들은 모두 個性的인 位置와 行動을 통하여 各其 다른 하나의 價値를 追求하며 跋涉하고 있다 <異邦人>에서 <驅吐>에서 <自由의 길>로 넘어서는 샤르트르의 정

우에 있어서나 虛無의 문제방에서 새로운 積極的인 價値를 창조하려는 設想은 실각한다 그러나 거세게 狂亂하던 否定的인 反抗에 비하여 이 일만나 수집은 서둘러는 재주이냐 앞으로 克服의 軌跡을 기다리는 人間의 圓熟적인 態도의 相을 들어낼 점에 있어서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날카로웠고 이 悲劇의 感受하는 점에서도 일층 실각하였다 하나 問題의 제시 할수 있는 곳이나 그의 해결 에서는 遑遑하다는 것을 그들은 솔직히 고백해야 할듯 하다 그렇다고 해서 1944년으로 끝나는 이 文學을 비판적인 것으로만 받아드릴 필요는 없다 人間을 그의 究極的인 相 아래 밝혀 내는 것—여기에 現

代文學의 자랑스러운 冒險이 귀결되는 것이지만 이 사실의 歷史的인 哲學的의 眞正성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결코 지나칠것은 없다 現代文學 이것은 歷史의 悲劇에 처한 現代人의 內面的인 苦悶이 한결 한결 人間 스스로의 運命의 극한에서 發하여 후의 탄생인듯이 보인다 敵意에 넘친 宇宙와 運命앞에 벌거벗은 人間—파살의 <神없는 人間의 不幸>의 어대목을 想起한다 現代文學은 구원받아야만 할 人間의 必將과 불행을 밝혀낸 점에 있어 人間이 스스로에 부가할수 있는 최후의 苦悶한 義務를 다 한것으로 나는 믿는다 (끝) (붙어과 전집 7상)

良 書 案 內 (續)

康 鳳 植

1. The Book of Job(舊約聖經)
6. 한 靈魂의 고인과 求道의 기록으로 또한 藝術의 향기가 높은 文學作品이다 英語로 玩讀을 권한다
1.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2. Spiller
6. 英國文學의 자라온 자욱에 명성만 명한 체계를 세워놓은名著이다
1. Prairie-Town Boy
2. Carl Sandburg
3. N.Y. Harcourt, 1955
4. 179 PP. \$2.75

1. Les Fleurs du Mal
2. Baudelaire
1. Terre des Hommes
2. Saint-Exupéry
1. Le Lys dans la Vallée
2. Balzac
1. Le Rouge et le Noir
2. Stendhal
1. Contes du Lundi
2. Daudet
1. Si le grain ne meurt
2. Gide (붙어과 주일 교수)

6. 칼·셴커는 1916년 그가 만38세에 處女詩集 Chicago poems를 발표함에 이르렀을 때부터 노숙한 생활과 공장이 들어찬 연기와 鋼鐵의 도시 『芝加哥』를 詩로 그려낸 노동자의 시인 민주주의의 시인으로서 유명하다 미국의 거세시대 사회를 dynamic한 리듬으로 詩에 나타낸 詩人으로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시인은 1878년 일리노이주 Galeberg에서 북부 Sweden에서 이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 그는 미국적으로 <참츠>라는 애명으로 불렸다 그가 나온 집, 후후 끝이 시간 <베어링>街의 집, 이웃 사람들 사경 아버지에게 울라라고 Grant가 당대 詩의 眞實을 구경한 이야기 共和黨 代表 選거대회 때의 어린 <참츠>머리에 남았던 추억이 그려졌다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 참츠는 讀書에 취미를 부친다 5학년 때 어저겨를 금요일 학교에서 John Abbot의 The History of Napoleon Bonaparte 제1권을 빌려다가 그는 3층 다락방에서 외부를 입은 채 일요일까지 열출해서 읽어왔다

특히 이외에 놀이와 운동도 좋아했다 11세 때부터 그는 녀석치 못한 家詩를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토지회사의 記사 신돈환이 우유배달 등을한다 우유배달 시절에는 서경어린 兄사망의 경험도 했다 그 후 그는 집소나와 방랑생활을한다 13살 記사 당시부터 記사하며 記사되던 때로 일하던 西部의 음을 이리저리 떠돌다가 美西戰爭에出征 陸軍大學에 들어가는 것으로 詩人의 少年시절을 끝이난다 이 자서전은 미국 作家的 시인 Carl Sandburg의 少年시대를 알러주는 동시에 19세기말 미국 中部의 조그만 마을의 가난한 少年의 한 生活記錄으로 보아도 재미있다 그의 詩의 核心을 이루는 庶民의 生活力을 우리는 여기서도 느낄수 있다 (英語科助敎授)

鄭 明 煥

1. 『地上의 糧食 (Les Nourritures Terrestres)』
2. 지이도 1897년
1. 『Zarathustra』 1891년
2. 니이케 1891년 原書를 읽어도 좋고 譯文으로 읽어도 좋겠으나 젊은 때에는 반드시 한번 必讀한 안아보아야 할 책들입니다 삶의 眞實이 불꽃처럼 타고나는 이 책들은 우리의 老老症을 막아 줄 것입니다 半世紀前에 나왔다고 해서 시의 價値 때문에 重要한 作品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歷史와 既成의 自我를 넘어선 것이 무엇일지 함께 배설이 주려는 것입니다 生命의 섬으로 달려가십시오 興奮해오십시오 (佛語科 專任 講師)

成 逸 根

1. The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Russian
2. W.K. Matthews
3. 1953
4. 6\$ P.225
5.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著者는 London University의 러시아어 敎授이며 現代러시아어의 形態와 9世紀부터 現代러시아어에 이르는 러시아어 歷史의 發展을 專門의 見地에서 記述한 良書이다
1. Russian Art
2. Tamara Talbot Rice
3. 1949
4. 700한 p.276
5. Pelican Books
6. 10世紀부터 러시아 革命까지의 建築 그림 刻劃 農民藝術의 概觀을 記述한 것이며 삽화(16枚)도 있고 比較的 容易하게 記述되어 있음

1. Russian, its past and present
2. Bernard Pares
3. 1954
4. 35c p.221
5. A mentor Book
6. 原書는 1941년 1월에 『Penguin Books』 版으로 刊行되었다 좀 오래된 冊이나 英國人의 러시아 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한번 읽어 두는 것도 좋을것이다 日語 譯本으로 是 岩波新書 (上下卷)도 있다 其他文學 作品으로는 다음 몇개를 列 舉해 둔다

李 鏞 求

1. Sainte Bible

(4번에 계속)

